

父母의 子女行動 統制樣式의 知覺과 自我正體水準과의 關係

金 順 花 · 朴 性 洙

(서울대)

요 약

자는 56%로 각각 나타났다.

父母의 子女行動 統制樣式에 따라 子女들의 能力과 社會性 등이 차이를 나타낸다는 Baumrind의 理論과 Marcia의 自我正體 水準을 근거로 하여 父母의 子女行動 統制樣式에 따라 自我正體 水準이 달라질 것이라는 假說을 세우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自我正體 成就, 猶豫, 閉鎖, 放任, 混迷 등의 자아정체 수준은 父母의 子女行動 統制樣式의 4次元-統制, 成熟要求, 對話의 明瞭性, 養育-에서 모두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p=0.5$ 수준에서 각 차원에 대한 男·女別 自我正體 水準간 평균의 개별비교 결과를 등호와 부등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統 制	男: 成就水準 > 閉鎖水準 = 猶豫水準 > 放任水準 = 混迷水準
	閉鎖水準 > 成就水準 > 猶豫水準 > 放任水準 = 混迷水準
成熟要求	女: 水準 = 混迷水準
	男: 成就水準 > 閉鎖水準 = 猶豫水準 > 放任水準 > 混迷水準
對 話	閉鎖水準 = 成就水準 > 猶豫水準 > 混迷水準
	女: 水準 > 放任水準
養 育	男: 成就水準 = 閉鎖水準 > 猶豫水準 = 放任水準 = 混迷水準
	閉鎖水準 = 成就水準 > 猶豫水準 > 放任水準 = 混迷水準

辨別分析의 결과에 의하면 自我正體 水準을 가장 잘 변별해 주는 次元은 男子의 경우는 양육과 통제 차원이며, 女子는 양육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統制, 成熟要求, 對話의 明瞭性, 養育 등의 변인으로 자아정체 수준을 豫言할 수 있는 정확성은 男子는 52%, 女

I. 緒 論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統制하였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성격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아동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 이후까지도 지속된다(Levenstein & Phyllis, 1978; Cunningham & Barkeley, 1979; Gordon, 1977; Shipman, 1976). 따라서 아동기 때의 부모의 자녀행동 통제양식은 청년기 때의 성격발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청년기에 형성하여야 할 중요한 성격 요인은 自我正體感(ego-identity)이다(Erikson, 1959, 1968).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는 단지 청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유아기때부터 시작되어 노년기까지 계속되는 것인데, 후기 청년기가 자아정체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자아정체감 형성이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정이 된다(Marcia 1980). 부모의 행동통제 양식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인 것이므로 그 영향은 청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 형성에까지 미칠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행동 통제양식에 따라 자아정체 수준의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

本研究은 父母의 子女行動 統制樣式에 대한 知覺이 自我正體 水準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려는 것이다. 후기청년기에 속하는 18~21 세사이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자아정체 수준과 그들이 현재 지각하고 있는 아동기(2~12세)때의 부모의 행동통제 양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부모의 자녀행동 통제양식은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Baumrind(1967)의 분류방식에 따라 統制, 成熟要求, 對話의 明瞭性, 養育 등의 네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自我正體 水準은 Marcia

(1966)의 분류방식에 근거하되 自我正體, 成就, 猶豫, 閉鎖, 混迷, 放任의 다섯가지 水準으로 재분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知覺된 父母의 子女行動統制樣式이 대학생들 자신의 自我正體 水準과 갖는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규명해 봄으로써 부모의 어떠한 행동통제유형이 자아정체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아직 충분하게 연구가 되지 않은 대학생들의 自我正體 水準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研究 問題

1. 理論的 背景

1) 自我正體의 意味

청년기에 형성하여야 할 중요한 발달과정인 자아정체(identity)는 개인의 주체적인 본질을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安定性, 統合, 自我의 再認識 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아정체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그만큼 그 개인의 행동이 잘 통합되고 안정된 것으로 된다.

Erikson(1975)은 이러한 자아정체감을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주관적 측면은 개인적 측면으로 個人的 正體感(personal identity)이라 하고, 객관적 측면은 사회적 측면으로 心理·社會的 正體感(psychosocial identity)이라고 부르고 있다. 개인적 정체감이란 시간의 경과속에 유지되는 自我의 계반 同質性(sameness)과 連續性(contingency)에 기초하나 단순히 동질성과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아정체감의 주관적 측면은 자아통합방법에 있어 동질성과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것과, 이러한 방법들이 타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보존하는데 유효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신감이라고 한다. 그리고 心理·社會的 正體感은 자기와 관계가 있는 어떤 집단에 대한 일치성이라고 보고 있다(Erikson, 1956). 반면에, 자아정체의 객관적 측면은 사회적 가치나 문화에 대한 개인의 귀속감과 소속된 소집단의 가치에 대한 귀속감 등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와같이 자아정체의 의미에 대해 Erikson은 통일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아정체에 관해 쓴 그의 저서(Erikson, 1959, 1960, 1963)를 통해 종합해 보면, 자아정체는 안정성, 통합, 자아의 재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는 자아정체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말하고 있다(Erikson, 1963).

“.....自我正體 感覺(sense of identity)이란 이미 내재한 자신의 同質性과 連續性(心理學的 의미로는 자신의 自我)이 자신이 타인에 대해 갖는 同質性과 連續性에 부합되는 때서 생긴 自信感이다(p.216).”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동질성의 연속에 그 핵심이 있는 Erikson의 自我正體感은 欲求, 能力, 信念, 個人史 등을 內의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는 力動的 體制인 自我構造로써 정의할 수도 있다(Marcia, 1980). 이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자아구조는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변화·발달되어간다. 자아구조가 잘 발달될수록 자신의 독특성과 타인과의 유사성,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과 한계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하므로, 자아정체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자아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自我正體의 發達

청년기의 발달과정인 자아정체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면서 발달되어 가는 것이므로, 자아정체감의 형성과정은 자아와 객체가 분리되는 유아기때부터 시작되어 노년기에 자아가 통합될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청년기 특히 후기 청년기의 自我正體가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젊은이들이 신체적 발달, 인지적 기술, 사회적 기대 등을 어린시절의 동일시와 분별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도를 구명해야 하는 첫 시기이기 때문이다(Marcia, 1980).

그러나 청년기의 自我正體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수준에서 性役割, 理念的 態度, 직업이나 장래진로 등에 대한 關與가 있어야 한다. 어린시절의 理念이나 同一視, 父母에 대한 依存心, 그리고 다양하고 화려한 모든 삶의 양식이 다 가능하다는 환상등을 버려야 한다. 自我正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자신이 부정하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긍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自我正體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만 형성된 경우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自我正體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형성된 사람들은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과거의 事想들을 부인하려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로 긍정적인 도약을 하려고 모험하지도 않는다. 즉 그들은 自我正體 危機를 극복하려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Marcia, 1980).

후기 청년기에 생기는 假說的인 心理·社會的 危機(psychosocial crisis)가 초래하는 自我正體 危機는 일단 얻은 信念들에 대한 關與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의 일부이다(Erikson, 1968). 따라

서 청년기의 自我正體 문제의 해결은 재정의해보고 재 해석해 보는 과정을 갖는 발달단계로 정의되는 自我正體 危機(identity crisis)에 의해서만 확증된다(Marcia, 1980). 청년기에 형성되어야 할 自我正體感의 내용 또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自我正體 危機는 시간 전망, 자기 확신, 역할 실현, 성취 기대, 性役割 확신, 집단 성원으로서의 자질 수립, 가치관 확립의 7가지 측면으로 세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들 각각에서의 危機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자아정체감 형성과 확립의 기본이다(Maier, 1969).

그러므로 自我正體는 계속적인 自我正體 危機의 克服을 통해 발달되어 간다. 자아정체감의 위기는 때로는 격심하여 완전히 심취되게 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자아정체감 형성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의 결정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면서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누구와 메이트를 할 것인가,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깨뜨릴 것인가, 性關係를 가질 것인가, 마약같은 것을 먹을 것인가,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취직을 할 것인가,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놀 것인가, 政治的 活動에 參與할 것인가 등 決定하는 것 자체가 사소한 일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결정들 각각이 自我正體 形成에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과 개인적 판단의 준거는 점차 一貫性있는 構造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확대되고 발달되어 간다. 또한 잘 발달된 自我正體 構造는 잘 발달된 超自我(superego)처럼 융통성이 있어 성숙된 자아정체감을 기반으로 자아정체감 내용을 광범위하게 재조직해 나간다(Marcia, 1980).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을 성취한 사람은 가장 유능하고, 삶의 위기를 또한 성공적으로 잘 해결하며 이데올로기에도 관여한다고 한다(Erikson, 1968).

3) 自我正體 水準

自我正體의 성장과 발달은 계속적 自我正體 危機의 극복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므로 自我正體를 成就된 水準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청년기의 自我正體 危機에 대처하는 양상은 크게 自我正體 成就(identity achievement)와 自我正體 混沌(identity confusion)로 분류한다. 自我正體 成就의 상태란 행동이 안정되고 통합되어 있으며 자기의식이 일관성이 있어 삶의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상태를 말하며, 自我正體 混沌의 상태란 신체적 친밀성, 결정적인 직업선택, 힘찬 경쟁 및 心理 社會的인 自己一定義에 대한 동시적 몰두를 요구하는 경험들이 혼란되어 있는

상태를 가르킨다(Erikson, 1968).

그러나 후기 청년기의 自我正體를 成就된 水準에 따라 좀더 세분화시켜 네가지 自我正體 水準으로 분류시킬 수 있다(Marcia 1966). Marcia는 Erikson이 자아정체감 형성시기를 職業的 및 理想的 關與가 성장하는 시기라고 본 것에서 출발하여, 면접방법에 의해 직업선택, 종교, 정치이념의 세 영역에 대한 危機와 關與(crisis and commitment)를 범주로 하여 네가지 自我正體 水準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위기란 의미깊은 여러가지 代案중에서 선택에 참여하여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를 말하고, 關與는 그 개인이 선택한 代案에 나타내는 개인의 心理的・行動的 投資의 정도를 말한다.

그는 危機를 체험하고 職業 및 理想에 關與한 것을 自我正體 成就(identity achievement), 危機의 경험여부에는 무관하게 關與가 결여된 상태를 正體感 混迷(diffusion), 危機期에 있으나 關與가 어느 정도 애매한 상태로 關與하려고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는 猶豫(moratorium), 그리고 危機는 겪지 않고 關與는 표현하는 父母에 대한 강한 의존이 특징인 상태를 閉鎖 foreclosure)로 각각 분류하였다.

自我正體 水準에 대한 準據를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自我正體 水準에 대한 準據

自我正體 水準 心理的 狀態	自我正體 成 就	閉鎖	混迷	猶豫
	有	無	有 또는 無	危機中
危機	有	有	無	모호한 상태로 有

이러한 Marcia의 분류의 豫測妥當性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긴장조건하에서의 概念習得課題의 수행, 要求水準, 權威主義, 반대되는 정보를 받았을 때 自己尊重感의 安定性 등을 自我正體 水準에 비추어 관찰・측정한 Marcia(1966)의 研究와 Waterman과 Waterman(1970, 1972)의 대학생들의 專功변경여부에 대한 研究와 학업성취와 自我正體 水準과의 관계에 대한 研究, 그리고 Podd(1972)의 자아정체 수준과 도덕성간의 관계에 대한 研究에서 입증되었다.

自我正體 水準과 不安度와의 관계에 대한 研究(Marcia, 1967; Mahler, 1969; Oshman and ManoSevitz, 1974)와 自我正體 水準과 自尊心과의 관계에 대한 研究(Cabin, 1966; Marcia, 1967; Rosenfeld, 1972; Breuer, 1973), 權威主義의 性格과 自我正體 水準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Marcia & Friedman, 1970; Breuer 1973; Matteson, 1974), 그리고 자율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Orlofsky, Marcia, & Lesser, 1973; Waterman, Buelbel, & Waterman, 1970)등에서 보면, 불안도는猶豫者들이 가장 높고閉鎖者들이 가장 낮다. 그리고自尊心은自我正體成就者들과猶豫者가 높은 반면에閉鎖와混迷水準의 학생은 낮은 것으로 특히閉鎖水準의 학생은 상황변화에 가장 민감하게自尊心이 중요되고, 권위주의적 가치와 가장 관계가 있다. 또한自我正體成就者들과猶豫者들은閉鎖나混迷水準의 학생들보다自律性이 높고能動的이며內向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피험자를 주로 남자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자 피험자인 경우에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여자의自我正體水準에 대한 최초의 연구(Marcia & Friedman, 1970)에서는自我正體成就者들이混迷水準의 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어려운專攻을 선택하며,閉鎖者들은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자존심은 강한데, 불안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依存性척도에서는閉鎖者들이自我正體成就者들과 가장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男子를 피험자로 한 연구에서自我正體猶豫者들이不安度가 가장 높으며 다른 성격적 특징들은自我正體成就者들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와같이自我正體水準과 성격의特徵과의 관계가性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男子는自我正體成就로 연대적인 접근(chronological proximity) 즉自我正體混迷와閉鎖水準에서 시작해서自我正體成就水準으로 발달되어 가는데 反해서女子의 경우는自我正體의安定性(stability of identity)이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自我正體成就水準과閉鎖水準의 학생들이 비슷한 성격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한다(Matteson, 1977).

그리고自我正體形成過程은 일반적으로性別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自我正體形成에 관련된下位領域의 내용이性別에 따라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의自我正體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男子大學생을 피험자로 하였기 때문에職業과 이데올로기 영역만을自我正體下位領域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女子에게 있어서는性問題에 대한 태도와職業과結婚간의 갈등이自我正體形成에 관련된 중요한下位領域이 되고있다(Marcia, 1980).

女子의自我正體에 있어서性問題의 중요성은 Poppen(1974)과 Waterman과 Nevid(1977)의 연구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청년기는 도덕적으로社會化되

는時期로道徳性的發達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性別에 관계없이道徳성과性・結婚에 대한 문제는自我正體形成에 중심이 된다(Matteson, 1977). 임상분야에서도自我正體障礙(identity disorder)를 자아정체 형성에 관련된下位領域중에 3개 이상이 불확실하여 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관련 영역을 장기적 목표(long-term goals), 직업선택(career choice), 친구관계(friendship patterns), 성적 적응과 행동(sexual orientation & behavior), 종교적 동일시(religious identification), 도덕관(moral value system) 집단충성심(group loyalties)으로 상정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따라서自我正體水準을 확인하기 위한下位領域은性別에 관계없이 최소한職業, 宗教, 政治, 性役割, 道徳性으로 상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父母의子女行動統制樣式

아동기때의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제한된 상황에서의 특별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가정의 특징과 부모의 행동유형에 초점을 둔다. 즉 부모의溫情, 養育, 許容性和統制, 愛情表現, 父母-子女간의意思表現, 家庭의民主的・權威主義的 분위기 등에 관심을 둔다(Mussen, Conger, & Kagan, 1979). Mother-child Home Programs에서도母의行動特性을言語的相互作用, 養育, 自律性 조장, 父母의統制로 나누어 20개 PACT (Parent and Child Together)의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Levenstein & Phyllis, 1978).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효과적으로 자녀를 가르치려는 부모들의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Baumrind, 1967; Bayley & Schaefer 1960; Bing, 1963; Hess, Shipman, Brophy, & Bear, 1968; Streissguth and Bee, 1972).

Baumrind(1967)는 아동의 행동유형과 성격특징에 있어 나타나는 차이를 아동의 자제력, 탐험적이고 새로운 자극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 주관적인 기분, 독자적으로 행동 하려는 능력, 동년배들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능력과 바램 등에 근거하여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부모의 자녀행동 통제양식을統制(control), 成熟要求(maturity demands), 父母-子女간의對話의明瞭性(clarity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父母의養育(parental nurturance)의 네 측면으로 나누어 부모로부터 직접 조사하여 아동의 성격과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가장成熟하고有能하며 독립적이고自己信賴的인兒童의父母들은統制, 成熟要求, 養

育, 對話의 네 측면에 모두 肯定的인 응답을 하였으며, 가장 依存의이고 自制力과 自己信賴가 없으며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미성숙한 兒童의 父母들은 養育側面을 제외한 統制, 成熟要求, 對話의 次元에서는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기 독립적이며 자제력도 있으나 安定感이 결여되어 不安해 하는 아동의 부모들은 養育側面에서 가장 否定的인 태도를 보였으며 統制, 成熟要求, 對話 次元에서의 자녀와의 관계는 自己信賴의인 아동의 부모와 미성숙한 아동의 부모들 반응의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Baumrind(1971)는 이와 같은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權威的(authoritative), 權威主義的(authoritarian), 許容的(permissive)인 것으로 다시 분류하여 부모의 자녀행동 통제양식을 설명하고 있다. 權威的인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그들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며, 행동을 제지할 때도 자녀 스스로 생각하여 기준을 세워 행동하도록 격려하여 이 해시킨다. 또한 溫情과 愛情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상황을 제공하여 이성적으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일관성있게 노력한다. 따라서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이 성숙된 행동의 보상으로써 평가된다. 반면에 權威主義的인 부모들은 매우 강요적이고 강제적인 통제를 하며,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자녀의 견해를 존중하려 들지 않는다. 또한 온정과 애정이 부족하여 자녀들은 불안과 분개를 느끼게 되므로, 시키는 대로 하긴 하나 두려움 때문에 혹은 사랑이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때문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許容的인 父母들은 비조직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부모들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미성숙한 자녀행동을 보고도 실망하지 않는다.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의 특징을 모방하기 쉬우므로 대개 미성숙하고 독립심과 자기 신뢰가 부족하다(Biehler, 1978).

부모가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였느냐 하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유형은 자녀들의 성격과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Baumrind, 1967, 1971; Gordon, 1974; Bigner, 1979).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아동이 외부세계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적응과정이 달리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지속된다(Shipman, 1973, 1976). 특히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동이 성장하여 사회에 적응할 때에도 나타난다(Kagan & Freeman, 1963).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인지적 요인, 성격, 행동 등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부모의 자녀 통제 양식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청년기 성인기까지 계속된다(Levenstein & phyllis, 1978; Cunningham & Barkely, 1979; Gordon, 1977). 아동기때의 부모의 자녀행동 통제양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된다는 것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유형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누적적인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Schaefer, 1972).

假 說

知覺된 父母의 子女行動 統制樣式에 따라 自我正體水準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研究 方法

1. 標 集

本 研究의 對象은 서울과 지방에서 연령이 18~21세 사이인 大學 2~3학년의 학생으로 표집하였다. 표집수는 교육심리학을 수강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음악대·사범대 학생 119명과 전남대학교 인문사회대 학생 121명으로 총 240명이다. 男·女의 비율을 보면 서울대학교에서는 女子가 67명, 男子가 52명이고, 전남대학교에서는 女子가 49명, 男子가 72명이다. 따라서 女子는 총 116명이고 男子는 124명이다.

2. 道 具

本 研究에서는 自我正體水準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와 지각된 부모의 자녀행동 통제양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1) 自我正體水準

本 研究에서는 Marcia의 분류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Marcia가 정의한 混迷水準을 混迷와 放任水準으로 재분류하였다. 학생생활연구소나 다른 상담장면에서 이루어진 카운슬링을 통한 임상적 관찰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람들, 즉 심한 정신적 갈등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방향도 잡지 못해 關與가 결여된 Marcia의 분류체계에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하여 關與가 결여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混迷水準으로 분류된다. 심한 정신적 갈등으로 混迷된 상태에 있어 關與가 결여된 사람과 무관심하여 關與가 결여된 사람은 精神的·心理的 狀態가 서로 다르다는 임상적 관찰에 근거하여 이를 本 研究에서는 달리 분류시켰다.

따라서 自我正體 下位領域에 대해 활발한 의문과 갈등을 겪고 이를 성공적으로 解決한 사람은 自我正體 成就, 自我正體 危機를 현재 겪고 있으나 個人的으로

의미있는 關與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猶豫, 關與는 하고 있으나 危機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閉鎖, 危機를 겪고 있으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混迷되어 關與가 결여된 사람은 混迷, 그리고 어떠한 關與도 없으며 관여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은 放任으로 自我正體 水準을 각각 분류하였다. 이를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表 2. 自我正體 水準에 대한 準據

自我正體 水準	自我正體 成 就	猶 豫	閉鎖	混迷	放任
危機	有	危機中	無	有	無
關與	有	모호한 상태로 有	有	無	無

이상에서와 같이 自我正體 水準은 Marcia의 분류모형을 기초로 재분류하였고, 自我正體 下位領域은 職業, 宗教, 政治, 性·結婚, 道德으로 하여 각 領域에 5개 문항씩 작성하여 총 25개 문항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각 문항의 대답은 (1) 閉鎖 (2) 猶豫 (3) 混迷 (4) 成就 (5) 放任의 순으로 제시하여 강제 선택하게 하였으며,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을 그 개인의 自我正體 水準으로 하였다. 통계적으로 自我正體 水準을定하기가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25개 문항에 대해 (1)~8개 (2)~3개 (3)~2개 (4)~8개 (5)~4개씩 선택한 경우에는 閉鎖水準(1)과 成就水準(4)으로 똑같이 반응하였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불명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가장 많이 선택한 수가 8개 이하인 경우에도 불명으로 처리하였다.

2) 父母의 子女行動 統制樣式

Baumrind의 理論의 背景을 토대로 父母의 子女 행동 통제양식은 統制, 成熟要求, 對話의 明瞭性, 養育의 네 次元으로 나누어 현재 知覺하고 있는 바를 조사하였다.

統制 次元은 子女의 目標指向의 活動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자녀에게 내면화 시키려고 嚴格함, 強化, 動機誘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의 행동을 指導하려는 부모의 노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되어 있다. 成熟要求 次元은 아동의 수준에서 과업을 수행하도록 自律性을 격려하고, 아동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여 자녀의 결정을 尊重해 주는 부모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對話 次元은 理性的인 자녀가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고 자녀의 의사와 느낌을 묻고 意思表現을 격려하는 程度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

로 되어 있으며, 부모의 養育次元은 溫情과 愛情의 程度, 兒童의 成就行動에 대한 칭찬과 만족에 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는 총 40개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대답은 평정척도(rating scale)를 사용하여 '아주 그렇다'는 5점, '그런 편이다'는 4점, '중간이다'는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주도록 하였다. 個人別로 각 문항마다 5점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각 次元別로 얻을 수 있는 최고점수는 50점(5×10문항)이다.

부모의 子女 행동 통제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질문의 半分信賴度는 모든 次元에서 .80이상으로 나타났다(統制: .83, 成熟要求: .80, 對話: .84, 養育: .87).

3. 統計處理

부모의 統制, 成熟要求, 對話의 明瞭性, 養育의 次元에 대한 自我正體 각각의 水準의 平均, 標準偏差를 男·女別로 구하고 全般的인 差의 檢證(F-test)과 Duncan의 多元區域檢證(Multiple-range Test)을 하여 自我正體 水準간 개별비교를 하였다. 또한 부모의 子女 행동 통제양식으로 분류한 네가지 次元중 어떤 차원이 自我正體 水準을 가장 잘 변별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要因을 근거로 하여 自我正體 水準을 분류할 수 있는 豫言可能性의 精確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辨別分析(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을 하였다.

IV. 結果 및 論議

本 研究의 가설 검증을 위해 自我正體 水準을 분류시킨 결과, 남자들은 전반적으로 自我正體가 成就와 猶豫水準(74%)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女子들의 自我正體는 閉鎖와 成就水準(6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全般的인 차의 검증과 多元區域檢證의 결과에 의하면 自我正體 成就, 猶豫, 閉鎖, 放任, 混迷 등의 自我正體 水準은 父母의 統制, 成熟要求, 對話, 養育 등의 次元에서 男·女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辨別分析의 결과에 의하면, 自我正體 水準을 가장 잘 辨別해 주는 次元은 남자의 경우는 養育과 統制 次元이며, 여자는 養育次元이 가장 잘 辨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統制, 成熟要求, 對話의 明瞭性, 養育등의 變因으로 自我正體 水準을 豫言할 수 있는 正確性은 男子는 52%, 女子는 56%로 각각 나타

났다.

$\rho = .05$ 수준에서 부모의 자녀행동 통제양식의 각 차원에 대한 남녀별 자아정체수준간의 평균의 개별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統 制	男: 成就水準>閉鎖水準>猶豫水準>放任水準=混迷水準
	閉鎖水準>成就水準>猶豫水準>放任水準=混迷水準
成熟要求	男: 成就水準>閉鎖水準>猶豫水準>放任水準>混迷水準
	閉鎖水準=成就水準>猶豫水準=混迷水準>放任水準
對 話	男: 成就水準=閉鎖水準>猶豫水準=放任水準=混迷水準
	閉鎖水準=成就水準>猶豫水準>放任水準>混迷水準
養 育	男: 成就水準=閉鎖水準>猶豫水準>放任水準=混迷水準
	閉鎖水準=成就水準>猶豫水準>放任水準=混迷水準

統制次元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는 평균이 成就集團이 가장 높고 放任과 混迷集團이 가장 낮다. 자아정체가 혼돈된 상태에 있어 職業, 政治, 宗教, 性・結婚, 道德性 등의 문제로 갈등을 느끼고 방황하거나 무관심한 학생들은 부모들이 그들의 행동을 엄격하게 지도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自我正體가 混迷水準인 학생들이 가장 부모의 통제가 적었던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도 自我正體가 放任과 混迷水準인 학생들이 가장 부모의 통제가 적었던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閉鎖水準이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理論的背景에서 밝힌 바 있듯이 自我正體의 安定性이 여자에게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 같다. 남자의 경우도 閉鎖水準集團이 猶豫水準集團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아동기때 자녀의 목표지향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아 주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엄격히 지도하면 자녀들의 自我正體形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안정된 自我正體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成熟要求次元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는 成就, 閉鎖, 猶豫水準인集團의 평균이 放任, 混迷水準의集團에 비해 의미있는 차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성숙요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지각하

고 있는 것은 統制次元에서와 마찬가지로 混迷水準의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閉鎖水準의 평균이 가장 높고 放任水準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成熟要求가 낮으면 자녀가 青年期때 自我正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자의 경우는 混迷水準에서 심한 갈등을 느끼고 방황하게 되고, 여자의 경우는 자아정체 하위영역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關與가 결여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기때 자녀의 연령수준에서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면서 子女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면, 그 영향이 자녀들이 청년기때 안정된 자아정체감을 성취하는데까지 미친다고 하겠다.

對話次元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남・여 모두 안정된 自我正體水準인 成就水準과 閉鎖水準集團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混迷水準集團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아동기때 자녀의 의견과 느낌을 묻고 의사표현을 격려하고 이성적으로 자녀가 순종하도록 이끌어주면 자녀들이 자아정체를 형성할 때 빨리 안정된 자아정체를 성취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강제로 이끌어 가면 자녀들이 청년기때 자아정체 혼미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養育次元의 결과에서도 보면 남자의 경우는 成就集團의 평균이 가장 높고 混迷集團이 가장 낮다. 여자의 경우는 閉鎖集團이 가장 높고 混迷集團이 역시 가장 낮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온정과 애정으로 대하고 아동의 성취행동에 대해 칭찬과 반쪽을 표현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청년기때 자녀들의 자아정체는 안정된 成就水準과 閉鎖水準에, 그리고 그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混迷와 放任水準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權威의인 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能力있고 自制力과 自己信賴가 있으며 또한 獨立的이라는 Baumrind(1967, 197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本研究는 青年期の自我正體形成에까지 미치는 부모의 子女行動統制樣式의 영향과 바람직한 子女行動統制樣式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부모의 아동기때의 자녀행동統制樣式이 自我正體形成에 미치는 영향을 自我正體水準의 차이로 검증해 본 本研究는 自我正體水準의 豫測妥當性을 입증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제작되어 사용되어진 질문지가 합리적인 도구임도 아울러 밝혔다고 하겠다.

本研究의 제한점과 더불어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한

提言을 함께 論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研究道具에 관한 問題이다. 本 研究에서는 개인의 전반적인 自我正體 水準만을 분류하고 각 下位領域別 自我正體 水準은 문항수가 적어서 분류하여 비교하지 못했다. 따라서 자아정체 각 下位領域의 문항 수를 늘려 下位領域別 개인의 自我正體 水準을 알아보는 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自我正體 水準의 분류에 대한 信賴度를 구해보고 이 질문지에 대한 妥當化 研究를 계속하는 등의 작업과 더불어 질문지법에 의해 분류한 自我正體 水準과 면접법에 의한 自我正體 水準의 信賴度와 妥當度를 비교해 보는 연구 등이 요망된다. 따라서 자아정체는 성취된 수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研究 結果 解釋에 관한 問題로서는 自我正體 水準은 서열성만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父母의 子女行動 統制樣式은 동간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本 研究에서는 自我正體 水準을 獨立變因으로 하고 知覺된 父母의 子女行動 統制樣式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假說을 검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인과적인 관계로 보면 父母의 子女行動 統制樣式이 선행조건이므로 本 研究의 結果에 대한 解釋은 獨立變因과 종속변인을 바꾸어 해석하여야 했다. 이러한 解釋方式이 本 研究에서는 별로 무리가 없었으나, 이런 解釋의 妥當性에 대해선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徐鳳延. 자아정체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75.
任寅宰. 統計方法, 서울: 박영사, 1979.
Adelsen, J.,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Sons, 1980.
Alice, S.H., *Parent Involve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975.
Bauer, R.H. & Synder, R., Ego identity and Motivation: An empirical study of achievement and affiliation in Erikson's theory. *Psychological Reports*, 1972, 30, 951-955.
Biehler, R.F., *Psychology applied to teaching* Houghton Mifflin C., 1978.
Bigner, J.J., *Parent-Child relations*, Macmilan, 1979.
Bronson, G.W., Identity diffusion in late adol-

esent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9, 59, 414-417.
Cicirelli, V.G., Mother-child and Sibling-Sibling Interactions on a Problem-Solving Task. *Child Development*, 1976, 47, 588-596.
Cross, J.H. & Allen, J.G., Ego identity status,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0, 34, 288.
Cunningham, C.E. & Barkeley, R.A., The Interactions of Normal and Hyperactive child with their mother in Free Play and Structured Tasks. *Child Development*, 1979, 50(1), 217-224.
Dignan, S.M.,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5, 1(5), 476-483.
Erikson E.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959.
Erikson, E.H.,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3.
Erikson, E.H., The Problem of Ego Identity. *Identity and Anxiety*, 1960.
Erikson, E.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Erikson, E.H., Identity, Psychosocial.,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McMillan Company & Free. 1975, Vol. 7.
Genthner, R.W. & Neuber, K.A.; Identity Achievers and their rated levels of facilitation. *Psychological Reports*, 1975, 36(3), 754.
Gruen, W., Rejection of false information about oneself as an indication of ego ident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60, 24 (3), 231-233.
Hershenson, D.B., Sense of identity, occupational fit, and encultur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67, 14 (4), 319-324.
Hess, R.D. & Shipman, V.C., Early Experience and the socialization of cognitive mood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1965, 34, 869-886.

- Levenstein, R.J. & Phyllis, S.M., *The Parent child Network: The Verbal Interaction Component*. Verbal Interaction Projection Freeport, N.Y.: 1978.
- Lindgren, H.C., *Educational Psychology in the Classroom*(5th), New York: Wiley & Sons, 1976.
- Lytton, H., Observation Studies of Parent-Child Interaction: A Methodological Review. *Child Development*, 1971, 42, 651-684.
- Marcia, J.E., Ego identity Status: Relationships to change in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1967, 35(1), 119-133.
- Marcia, J.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966, 3(5), 551-558.
- Marcia, J.E. & Friedman, M.L., Ego Identity Status in collegd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1970, 2, 249-263.
- Munro, G. & Adams, G.R., Ego-Identity Formation in College Students and Working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1977, 13(5), 523-524.
- Mussen, P.H., Conger, J.J. & Kagan, J.,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Harper & Row, 1979.
- Norman, H.N., Hull, C.H., Jenkins, J.G., Steinbrenner, K. & Bent, D.H., SPSS. New York: McGraw-Hill, 1975.
- Podd, M.H., Ego identity status & Morality. *Development Psychology*, 1972, 6, 497-507.
- Rasmussen, J.E., Relationship of ego identity to psychosocial effectiveness. *Psychological Reports*, 1964, 15, 815-825.
- Schenkel, S. & Marcia, J.E., Attitudes toward premarital intercourse determing ego identity status in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1974, 5, 147-158.
- Sterens, J.H. & Mathews, M., *Relationships: mother-child, father-child*.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978.
- Tan, A.L., Kendis, R.J., Fine, J.T. & Porac, J., A short measure of Eriksonian ego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77, 41, 279-284.
- Toder, N.L. & Marcia, J.E., Ego identity status & response to conformity pressure in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1972, 3, 472-482.
- Waterman, A.S., Geary, P.S. & Waterman, C.K.,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ego identity status from the freshman to the senior year at college. *Developmental Psychology*, 1974, 10, 387-392.
- Waterman, A.S., Kohutis, E. & Pulone, J., The Role of Expressive Writing in Ego Identity 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977, 13(3), 286-287.
- Waterman, A.S. & Waterman, C.K.,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identity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70, 64(4), 165-168.
- Waterman, A.S. & Waterman, C.K., The relationship between freshman ego identity status and subsequent academic behavior: A test of the predictive validity of Marcia's categorization system for identity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1972, 6(1), 179.
- Williams, M.S.W., Janet, B.W., *DSM-III*.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The Relation Between Student's Identity Status And Parents' Child Behavior Control Patterns Perceived by Students

Soon-Hwa Kim, Sung-Soo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identity statuses and parent's child behavior control patterns perceived by students.

Baumrinds' studies on parents' child behavior control and Marcia's investigations on identity statuses have been theoretical foundations for the study.

In this study, Marcias categories of the iden-

tity statuses is reclassified; identity achievement, moratorium, foreclosure, diffusion and indifference. Parents' patterns of child behavior control suggested by Baumrind are control, maturity demand, communication and nurturanc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the research hypothesis is generally accepted at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Based on the res-

ults and previous studies, it would be concluded that parents' control patterns of child behavior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ollege student's identity statuses.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of the identity statuses and the behavior control patterns between college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